

腦의 機能에 對한 藏象論的 考察

成 彊 慶 *

ABSTRACT

Bibliographic Study on the Function of the Brain on the Basis of Zangxiang Theory

Sung Kang Kyoung

After bibliographic study on function of the brain(腦, nao) on the basis of zangxiang theory(안보임), the theory of visceral activit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Brain is the organ conglomerated with marrow(隨, sui) between Baihui(百?) and Fengfu (風府)
2. Brain has different function and names according to the parts.
3. Brain is on anatomical view the extraordinary organ(奇恒之府, qiheng zhi fu) and stores clarified air(氣, qi) of fresh air.
4. Brain is the places where the viral essence (精, jeong) of five viscera is activated.
5. Brain is the places where the vital essence congeries into the mind(神, shen) Yang form of the essence.
6. The mind converted from the brain emerges in the whole body the sensory organs and carries vital function.
7. Brain reservoirs the mind, while the heart(心, xm) is thought to make judgement inroyght the speculation on the outward stimulus of matter and give orders to the mind in the chest.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循環器內科學教室

1. 緒 論

現代 西洋醫學에서는 腦(Brain)를 人間活動의 全領域을 統合 調節 統制하는 中樞的이며 獨立된 器官으로 認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研究 分野도 腦의 構造, 發達 및 뉴런(neuron) 즉 腦神經細胞에서 일어나는 化學的 電氣的 現象, 여러 뉴런間的 相互作用, 腦의 독특한 所産인 行 動과 經驗등에 이르기까지 多樣하고 活潑하다¹⁾.

整體的 反映原理에 根據해서 外在的 綜合表現을 觀察 分析하여 本質的 內容을 把握하는 藏象論的²⁾인 認識下에서 基礎한 韓醫學에서 腦에 대한 認識은 內經에서 奇恒之府⁹⁾, 髓之海¹¹⁾**라 하여 記載되어 있으나 獨立된 器官이 아닌 臟腑의 機能이 發顯되는 被動的인 器官으로 照明 되어왔다³⁾.

그후 精神 意識 思惟活動과 腦와의 關係에 대한 研究가 深化되면서 唐代의 孫思邈은 頭者人之元首 人神之所注라 하여 腦가 神이 깃들여 있는 器官임을 提示 하였고 元代의 趙友欽은 腦에 靈性이 있다 하였으며, 明代에 이르러 李時珍은 腦爲元神之府라하여 腦가 神을 總括하는 主體的인 器官임을 明確히 主張하였다.

清代에는 西洋醫學이 收入되면서 그 影響을 받은 匯通學派들에 의해서 腦主記憶說(汪昂), 強記健康由腦說(王學權), 靈機記性在腦說(王清任), 腦散動覺之氣說(趙彥暉) 등의 여러 理論이 提示되었다⁴⁾.

이와같이 腦에 대한 認識이 內經時代의 藏象論的인 思考에서 비롯되어 明清時代의 腦髓中心의인 思考에까지 變化되어 왔으나 아직도 整體觀에 基礎를 둔 臟腑論的인 面에서의 腦에

대한 認識을 否定할 수 없다.

따라서 著者는 藏象論的인 觀點에서 腦에 대한 機能을 알아보고자 文獻考察을 해본 結果 몇가지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腦髓骨脈膽女子胞此六者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故藏而不瀉 名曰奇恒之府

**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其蓋 下在風府

II. 總括 및 考察

1. 腦의 發生學的인 面

腦에 대해서 靈樞海論¹¹⁾에서는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其蓋 下在風府”라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蓋는 頭頂 中央의 督脈經上의 百會穴⁸⁾을 말하므로, 腦는 위로는 百會穴과 아래로는 風府穴 사이에 髓가 모여있는 것으로 定義할 수 있다.

腦의 發生에 대해서는 靈樞經脈編¹²⁾에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榮 筋爲剛 肉爲墻 皮膚堅而毛髮長 穀入於胃 脈道以通 血氣乃行”이라하여 精이 먼저 生한 後에 精에 의하여 腦가 發生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 具體的인 發生過程 및 機作에 대하여 張¹²⁾*은 先天 水火의 精氣에서 먼저 兩腎이 生하고 腎精이 上注하여 腦髓가 生한다 하였고, 郭⁵⁾**은 髓는 본래 精에서 生하는데 精이 아래로 督脈을 通하면 命門火가 溫養하여 髓가 더욱 充원된다 한것으로 보아 腦는 腎精이 命門의 溫養作用에

의하여 髓가 되고 그 髓가 上注하여 頭部の 百會穴과 風府穴 사이에 모인 것 임을 알 수 있으며 五隆津液別編¹³⁾에서는 “五穀之精液 和合而爲膏者 內滲入於骨空 補益腦髓 而下流於陰股”라 하여 腦가 水穀의 津液에 의해서 補益되고 있음을 말하고있다.

2. 腦의 解剖學的인 名稱

黃庭經⁶⁾을 살펴보면 “泥丸九眞皆有房 房圓一寸處”라 하여 腦에 神이 居處하는 9個의 房이 있다 하였고, 各各 雙丹宮, 明堂宮, 泥丸宮, 流珠宮, 大帝宮, 天庭宮, 極眞宮, 玄丹宮, 太皇宮 등으로 命名하였으며, 또한 腦에서 面部의 髮 腦眼 鼻 耳 舌 齒로 神이 發顯 되는 것에 따라 各各의 名稱을 使用하고 있는데 髮로 나오는 神을 太元, 腦로 나온 神을 泥丸, 眼으로 나온 神을 英玄, 鼻로 나가는 神을 靈堅, 耳로 나가는 神을 幽田, 舌로 나가는 神을 正倫, 齒로 나가는 神을 羅千이라 하였다.

以上을 考察해 볼때 韓醫學에서도 腦를 部位에 따라 各其 다른 名稱을 使用하고 있으며, 解剖學的인 部位에 따라 다른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 人始生先成精者 本於先天水火之精氣 而先生兩腎 腦爲精髓之海 腎精上注於腦 而腦髓生

** 髓本精生 下通督脈 命火溫養 則髓益充 縱欲者傷其命門 不但無以上溫 而且索 其下注 腦髓几何 能禁命門之取給而不散乎?

3. 腦의 生理 및 機能

1) 奇恒之府로서의 腦

素問 五藏別論⁹⁾을 보면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瀉 名曰奇恒之府”라 하여 腦를 奇恒之府라 하였고 楊⁷⁾은 奇恒之府는 作用에 있어서 精氣를 藏하여 機體를 濡養하나 體外로 泄하지 않으므로, 傳化物而不藏하는 傳化之府와 機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奇恒之府라 한다 하였다.

傳化之府에 대하여 張⁹⁾은 “夫臟爲陰 地爲陰 地之濁氣升于天 天受地而復降于下 故名曰傳化之府 天主施化也”라 했고, 馬⁹⁾는 “胃 大小腸 三焦 膀胱 此五者屬陽 乃天氣 之所生也 皆天主變化 五者瀉而不能藏 此所以上天也 此則受五臟之濁氣而傳化之名曰傳化之府”라 하였는데 이것을 考察해볼때 陰陽은 消長과 轉化에 있어서 일정한 條件下에서 서로 陰消陽長 惑은 陽消陰長의 形態로 轉化하는데 人體에 있어서 臟은 陰에 屬하므로 五臟의 濁氣는 陽化되어 升하게 된다. 이러한 消長發展은 物極必反의 理致에 따라 陽은 다시 陰으로 轉化하게 되는데²⁾ 이때 傳化之府는 이 陰中之陽을 받아 瀉하는 役割을 하게된다.

한편 張⁹⁾은 奇恒之府에 대하여 “飲食于胃 有無味清濁上下出入之分 當知奇恒之府 亦受清中之清者也 라하여 奇恒之府가 清中之濁氣를 받는 傳化之府와 달리 清中之清氣를 받는다 하였다. 清濁에 대하여 靈樞 陰陽清濁論¹⁴⁾에서는 受穀者濁 受氣者清 清者注陰 濁者注陽이라하여 清氣는 陰經으로 모이고 濁氣는 陽經으로 모인 다 하였고 張은 天爲陽 地爲陰 天一生水 地爲

生火 火爲陽 水爲陰 故清者有濁 濁者有清이라 하여 陽에 해당되는 天은 水를 生하고 陰에 해당되는 地는 火를 生한다 하였다.

이것은 陰經에 모인 清氣는 火로 化하고 陽經에 모인 濁氣는 水로 化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以上을 모두 綜合 해보면 清氣는 陰經으로 모여서 生火할 수 있는 氣를 말하며 濁氣는 陽經에 모여서 生水할 수 있는 氣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五臟別論⁹⁾에서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瀉 名曰奇恒之府라하여 奇恒之府가 地氣의 所生이므로 奇恒之府가 清中之 清氣를 받는다는 것은 生火될 수 있는 氣를 받아 藏하는 것을 意味하며 生水할 수 있는 氣가 모인 傳化之府와 이런 意味에서 다르기때문에 奇恒之府라 名하였으며 이것이 奇恒之府의 機能이라 할수있다.

* 就是異於奇恒之府 由於腦髓骨脈膽女子胞此六者在作用上是藏精氣而濡養機體而不泄於體外的它們的功能不同於傳化之府的傳化而不藏所以叫估奇恒之府

2) 髓之海로써의 腦

素問 五臟生成編¹⁰⁾에서는 諸髓者皆屬於腦라 했고, 靈樞 海論¹¹⁾에서는 腦爲髓之海 其輸上在於其蓋 下在風府라 하여 腦는 髓가 모여있는 곳이며 髓海라 한다 하였다.

海에 대하여 靈樞 海論¹¹⁾을 살펴보면 夫十二經脈者 內屬於府藏 外絡於夫節 夫子乃合之於四海乎 岐伯答曰 人亦有四海 十二經水 經水者皆注

於海 海有東南西北 名曰四海라 하여 海는 內로는 臟府와 밖으로는 肢節을 連絡하는 12經脈이 合해지는 곳으로 經水가 모이는 곳을 말하고 있다. 經水는 水를 받아서 行하게 하는 것이며 水는 筋脈을 流通하는 血氣¹⁵⁾*를 말하므로 海는 곧 血氣가 臟腑 밖으로 나가 生理現象을 遂行하기 前에 모이는 곳을말하는 것이다.

髓海는 髓가 모인 곳으로 髓海의 機能에 대하여 張¹¹⁾은 是髓海之上通于天而下通於經水也 是十二經脈 應地之十二經水 經水者皆注於海 海有東西南北而海之 雲氣上通於天이라하여 髓海는 위로는 天으로 通하고 아래로는 經水와 通한다 하였는데 여기에서天은 陽을 象徵하고 經水는 陰精을 象徵하므로 髓海는 五臟之精이 모여 氣化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 夫經水者 受水而行之

3) 腦와 神

許¹⁹⁾는 黃庭經을 引用하여 頭와 神의 關係에 대하여 頭爲天谷以藏神 谷者天谷也神者一身之元神也 天之谷含造化容虛空 地之谷容萬物載山川 人與天地同所稟 亦有谷焉 其谷藏眞一宅元神이라하여 頭는 一身의 元神을 藏하고 生命의 造化가 發顯되는 곳으로 認識하였으며 孫思邈도 千金要方에서 頭者 人之元首 人神之所洲라하여 頭와 神과의 關係를 말하였고 明代 李時珍은 腦爲元神之府라 하여 腦와 神과의 關係를 明確히 말하였다⁴⁾.

神에 대하여 天元記大論¹⁶⁾에서 物生謂之化 物極謂之變 陰陽不測謂之神이라 하였는데 여기에

서의 不測은 陰陽氣의 矛盾된 運動의 外在表現形式을 가리키므로 神은 氣의 陰陽 兩方面으로의 對立 統一하는 矛盾된 運動에서 發生하는 그 外部表現形式을 말하는 것으로, 生命機能 活動의 總體的 表現이며 人間의 精神活動 또한 生命機能의 중요한 部分이므로 精神意識活動역시 神의 範疇에 屬한다²⁾.

神의 發生의 根源에 대하여 靈樞 本神篇¹⁷⁾에서는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이라 하였고 張¹⁹⁾은 類經 古有真人聖人賢人에서 神由精氣而生 然所以統馭精氣而爲運用之主者 則又在吾心之神이라 하여 神이 精으로 말미암아 生하고 있음을 말하고있으며 靈樞 經脈編¹²⁾에서는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이라 하여 腦髓 또한 精이라는 物質的 基礎下에서 이루어 진다 하였다.

以上을 考察해 보면 腦髓와 神은 모두 精에서 發生되는데, 髓는 精이 命門의 溫養作用을 받아 生하게 된것이고, 神은 精이 眞陽의 形態로 轉化된 것이며, 腦는 精으로 말미암아 發生된 神을 藏하므로 精髓神 三者 사이의 關係는 精이 腦髓를 通하여神으로 轉化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腦는 精이 神이라는 眞陽의 形態로 轉化되는 곳으로 思料된다.

4) 腦와 全身 및 五官과의 關係

黃庭經 至道章⁶⁾에서 泥丸百節皆有神이라 하였고, 一面之神宗泥丸 泥丸九眞皆有房이라 하였으며 髮神을 太元, 腦神을 泥丸, 眼神을 英玄, 鼻神을 靈堅, 耳神을 幽田, 舌神을 正倫, 齒神을

羅千이라 하였다.

以上을 살펴볼때 泥丸은 腦를 말하고 一面之神은 髮 腦 眼 鼻 耳 舌 齒의 神을 말하고 있으므로 腦는 全身과 五官의 神을 主체하고 統馭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腦는 全身 및 五管으로 神을 發現시켜 具體的 生命現象을 實現케 하며 統馭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5) 腦와 心の 關係

王⁴⁾은 腦爲元神之府라 했고 素問 靈蘭秘典論¹⁸⁾에서는 心者君主之官 神明而出焉이라 하여 腦와 心이 모두 神과 密接한 關係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腦와 神의 關係에 대하여 郭⁵⁾은 人之記性 含藏在腦 凡人追憶往事驟不可得 其手不覺搔腦后若牽物令之出者 雖兒童亦如是 此其明證也 盖腦爲髓海 又名元神之府 水足髓充 則元神清而強 記不忘矣라 하여 사람의 記憶이 腦에 貯藏된다 하였고, 또한 人之記性 皆在腦中 小兒善忘者 腦未滿也 老人健忘者 腦漸空也 凡人外見一物 必有一形影留于腦中 昂思今人每記憶往事 必閉目上竚而思索之 此卽凝神于腦之意也 不經先生道破 人皆習焉而不察矣라 하여 사람이 外界의 事物을 보게되면 神이 凝結되어 하나의 形影을 形成하고 이것이 腦中에 所藏되어 記憶된다 하였다.

한편 心과 神의 關係에 대해서 內經에서는 心者君主之官 神明而出焉¹⁸⁾이라 하여 精神 意識 思惟 活動이 心에서 비롯 된다 하였고 이러한 心の 活動에 대하여 靈樞 本神篇¹⁷⁾에서는 所以任物者謂之心 心有所憶謂之意 意之所存謂之志

因志而存變謂之思 因思而遠慕謂之慮 因慮而處物謂之智라 하여 外部刺戟에 대하여 心이 처음任한후 一連의 思惟過程을 거쳐서 對處하고 있음을 말하고있다.

神에 대한 腦와 心의 作用에 대하여 黃庭經⁶⁾에서는 一面之神宗泥丸 泥丸九眞皆有房.....但思一部 壽無窮 非別各住俱腦中 列位坐次向外方 所存在心自相當이라 記述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神은 모두 腦에서 居處하고 있다가 心의 命을 받아 外部로 나가서 機能을 遂行하므로 心만 생각하면 壽가 無窮하다 하였다.

以上을 考察 해보면 腦는 神을 貯藏하는 곳이며 心은 事物이나 外部의 刺戟에 대해서 처음任한후 思惟過程을 거쳐서 判斷하고 그에 맞는 對處를 하기위해 腦中の 神에 命을 내려 遂行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III. 結 論

以上과 같이 腦에 대하여 整體的인 觀點에서 文獻을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腦는 百會穴과 風府穴 사이에 髓가 모여 構成된 形態的인 器官이다.
2. 解剖學的인 面에서 腦는 部位에 따라 各其 다른 機能을 遂行하며 名稱도 다르게 表現 되었다.
3. 腦는 奇恒之府로서 生火할 수 있는 清中之 清氣를 받아 藏한다

4. 腦는 髓之海로써 五臟之精이 모여 氣化되는 곳이다.

5. 腦는 精이 眞陽의 形態인 神으로 轉化되는 곳이다.

6. 腦에서 轉化된 神은 全身 과 五官으로 發顯되어 生命機能을 遂行한다.

7. 腦는 神을 所藏하는 곳이며, 心은 外部의 刺戟이나 事物에 任하여 思惟過程을 通하여 對處方向을 判斷하고 腦中の 神에 命을 내려 遂行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金基錫: 腦, 서울, 星苑社, p.11, 1989.
2. 朴贊國: 病因病機學, 서울, 傳統醫學研究所, p.39, 1992.
3. 楊 力: 周易與中醫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pp.314,315, 1991.
4. 王克勤: 中醫神主學說,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p.8-10, 1988.
5. 郭靄春: 中醫名言大辭典, 北京, 中原農民出版社,p.289, 1991.
6. 文山豚叟肅天石: 黃庭經秘註, 臺北, 自由出版社, pp.304-309,1977.
7.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五臟別論), 臺北, 樂群出版公社,pp.100,101,1979.
8. 上揭書: 靈樞 海論 pp.280,281,
9. 馬元臺.張隱庵: 黃帝內經(五藏別論),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p.96, 1982.

10. 上揭書: 五臟生成 p.90,
11. 上揭書: 靈樞 海論 p.246,1982.
12. 上揭書: 經脈 pp,73,74,
13. 上揭書: 五隆津液別 p.256,
14. 上揭書: 陰陽清濁 pp.268,269,
15. 上揭書: 經水 pp.136,137,
16. 上揭書: 素問 天元機大論 pp. 441,442,
17. 上揭書: 靈樞 本神 pp.57-60,
18. 上揭書: 靈蘭秘典論 p.73,
19. 張景岳: 類經(上), 서울, 大星文化社
pp.29-31, 1982.